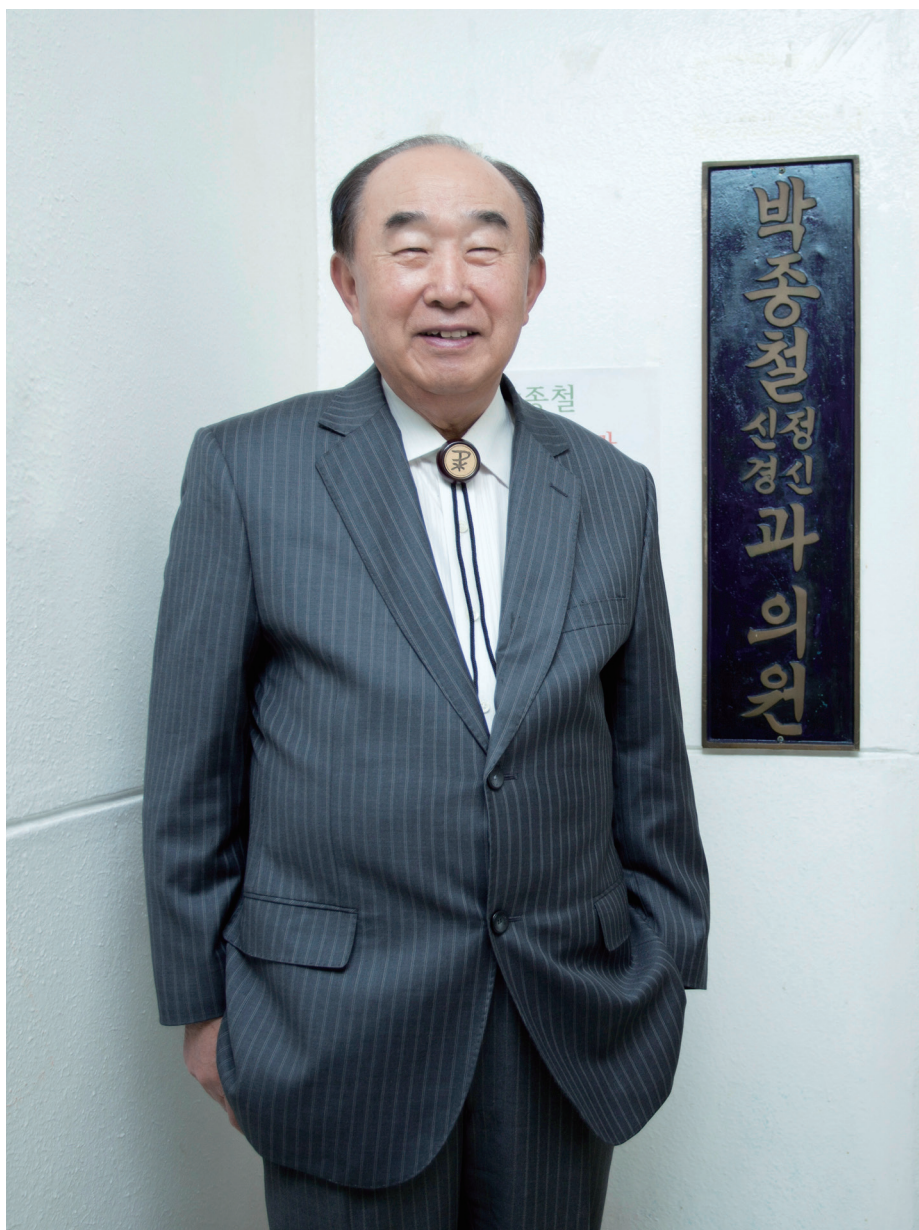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더욱 아름답다”

글 정재학 작가 / 사진 전호성



국내 뇌전증 치료의 선구자로, 1965년부터 뇌전증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해온 박종철 원장. 올해 83세인 박 원장은 요즘도 변함없이 환자를 진료한다.

※ 박종철 원장: 1933년 전북 정읍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출생. 전주고, 연세대 의대 및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근무 뒤 1975년 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 개원. 1965년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근무하며 뇌전증 치료봉사 시작. (사)장미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아세아-태평양지역 간질협회장, 한국간질협회 회장, (재)한민족복지재단 의료담당 공동대표,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생명의전화 이사장 등 역임. 현재 (사)로즈클럽인터내셔널 회장. 대통령 표창, 네팔 국왕 사회봉사 훈장, 국제간질학회 사회공헌상, 보령의료봉사 대상 등 수상 및 수훈. 부인(김혜자·82)과의 사이에 1남2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골목 5층에 위치한 박종철신경정신과 의원. 병원 입구에 걸린 색 바랜 나무현판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박종철(83) 원장이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환자를 돌보기 시작한 지 51년, 자신의 이름으로 의원을 개원한 지 41년이 되었다.

한때 의사 7명에 직원이 50명에 달할 정도로 큰 병원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규모를 줄여 박 원장과 부원장, 두 사람이 하루 50~6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 그래도 여전히 줄이지 않는 것은 그가 참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이다.

박 원장은 월·수·금 사흘만 진료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외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온 그의 봉사활동 경력은 무려 50년이 넘는다. 뇌전증(간질) 환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장미회 회장을 비롯, 로즈클럽인터내셔널 회장, 생명의전화와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맡으면서 여러 봉사단체를 이끌어왔다.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1호 박사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박 원장은 전주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전쟁통에 잠시 전주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미당 서정주 선생으로부터 국어 수업을 듣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미당 선생으로부터 받은 문학의 세례 속에서 박 원장은 자연스럽게 문학도를 꿈꾸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그가 공학도가 되길 원했다.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기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박 원장은 당시 일본어로 번역된 소설 한 편을 읽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한다. 그의 운명을 바꾼 책은 독일의 의사이자 시인, 소설가였던 한스 카로사(Hans Carossa)가 쓴 <의사 기온>(Der Arzt Gion)이라는 소설이었다.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고 나서 작가 소개를 보니 의사였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문학을 못 하면 의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시절 부산에서 연세대 의대에 진학했다. 그 당시 의사라면 내과나 외과 의사를 떠올리던 시절이었지만 그는 특별하게도 신경정신과를 선택했다. 한때 문학도를 꿈꾸었던 그의 풍부한 감수성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치료하는 신경정신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에는 교수의 권유로 연세대 의대



박종철 원장은 진료하면서 의사 기운을 입지 않는다.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가 큰 환자들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에서 신경정신과 석사와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했다. 지금이야 신경정신과가 의학계에서 주목받는 분야지만 당시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박 원장은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1호 박사로 우리나라 신경정신과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군복무를 마치고 1965년부터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그즈음 미국 출신의 선교사였던 레나 벨 로빈슨(Lenna Belle Robinson) 여사를 만난다. 인천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로빈슨 선교사는 뇌전증을 앓는 여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증상을 나타내는 병으로, 과도한 흥분상태가 나타나면서 의식이 없어지거나 발작 증세와 경련을 일으킨다. 원래 간질로 불렸으나 병 이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해 최근에는 뇌전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귀신 들린 병’을 고치다

뇌전증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불치병으로 알려졌으며 ‘천질’이나 ‘귀신들린 병’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보니 병에 걸리면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할 정도였다. 치료약이 개발된 후에도 약값이 비쌌던터라 약을 구하기도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 원장은 로빈슨 선교사와의 인연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인천의 뇌전증 환자들 모임에 참가해 의료 봉사활동을 했다. ‘가시 있는 장미가 아름다운 것처럼, 뇌전증 환자도 훌륭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이 진료 봉사활동은 후에 뇌전증 환자들의 모임인 장미회로 발전한다.



박충철 원장은 1985년부터 네 팔의 뇌전증 환자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을 위해 카트만두에 직업학교를 설립했다. 네팔 국왕은 이런 공로를 인정해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고훈장을 수여했다(왼쪽). 장미회가 운영하는 한국-네팔 친선병원 앞에서. 목에 화환을 두른 사람이 박 원장이다(위).

박 원장을 통해 발작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로빈슨 선교사는 뇌전증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을 수 없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전국의 교회와 지역보건센터를 거점으로 무료 순회진료를 이어갔고, 박 원장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인천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부산과 강원도 원주에서도 장미회 모임이 시작됐다. 1974년 박 원장은 전국에 있는 뇌전증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진료하기 위해 사단법인 장미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설립 초기에는 환자들을 위해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 약을 공급받아 투약했는데 이후 국내 제약회사들도 봉사에 참여, 상당수의 약품을 제공해왔다. 장미회는 전국 70여 교회의 순회진료소와 위탁진료소에서 뇌전증 환자에게 진료와 치료약을 제공했으며, 장미회를 통해 치료나 투약을 지원한 환자가 한때 10만 명 이상을 정도였다.

뇌전증 치료약이 많이 개발되고 병원에서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어도 장미회를 찾는 환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장미회는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곳이기도 했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유전병’이니 ‘지랄병’이니 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끼리 모임에서 만나 치료를 받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데리고 오는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종합병원의 뇌전증 전문 인력과 시설이 늘어났다. 환자들이 종합병원 진료를 선호하면서 장미회의 역할도 달라졌다. 진료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재활과 복지, 환자들의 권익 증진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국내 환자를 위한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로 이관하는 대신 해외 뇌전증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기능만을 남겨 사단법인 로즈클럽인터내셔널로 분리했다. 박 원장은 현재 로즈클럽인터내셔널의 회장을 맡아 해외 뇌전증 환자 지원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네팔 최고의 훈장을 받다

1960~1970년대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약품과 재정 지원을 받았던 경험을 되돌려주는 일에도 열심이다. 장미회가 중심이 되어 네팔과 중국 연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 약품 등을 지원하여 뇌전증 환자 치료를 돕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팔과의 인연이 깊다. 1985년 무렵 박 원장이 이화여대에서 뇌전증에 대해 강의하며 장미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팔에서 유학 온 여학생이 그 수업을 듣고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박 원장에게 네팔의 뇌전증 환자를 치료해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해온 것이다.

네팔 뇌전증 환자의 어려움을 알게 된 박 원장은 한국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1985년 네팔에 뇌전증 클리닉을 개원하고 네팔 뇌전증협회를 설립했다. 네팔의 오지 마을과 불가촉천민 집단 거주 지역에는 진료소를 개설해 소외된 계층에게 뇌전증을 비롯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1993년부터는 네팔 학생을 한국에 초청해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 네팔 국왕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수해가 발생한 북한 주민을 위해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북한 지원에도 관심

을 가졌다. 전 세계의 어려운 환자들을 도우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었다.

이후 14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나진과 평양의 주요 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의학 포럼 등을 개최했다. 2006년에는 북한의 보건의료사업을 전문화하고자 장미회 내에 ‘새누리 좋은 사람들’이라는 대북사업팀을 만들어 평양중앙연구소의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첨단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평양중앙연구소에 뇌전증보건의센터를 설립, 15만 명이 넘는 북한 뇌전증 환자의 지원사업에도 참여했다.

2010년에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북한의 여러 병원과 중앙연구소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향신문사가 제정한 제9회 민족화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추진

박 원장의 봉사활동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76년 한국 최초의 전화상담 단체인 생명의전화 창립 이사로 참여, 2015년까지 40여 년 동안 생명의전화 상담요원 강사와 교육위원장·원장·이사장 등으로 봉사했으며, 2004년에는 종교·사회 지도자 100명과 함께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만들어 초대와 2대 이사장을 맡았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와의 인연도 있다. 설립자는 학교를 개방해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의의 초대 회장을 맡아 1994년까지 25년 동안 큰 정성을 쏟았다. 박 원장은 1991~1992년 이 단체의 종로지부 이사를 맡았는데,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몇 차례 청운동의 설립자 자택으로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한다.

박 원장은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활동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내팔 등 해외로 오가는 모든 경비도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

“대부분 내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끝까지 남아있었을 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박종철 원장은 뇌전증 치료만이 아니라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 원장이 이사장을 역임한 생명의전화 개통식 사진(위)과, 수간호사(오른쪽)·원무직원과 함께한 모습(아래).

이었습니니다.”

겸손해하는 박 원장의 말과 달리 “박 원장이 없었다면 장미회를 비롯한 여러 봉사단체들이 지금껏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중론이다. 박 원장이 2016년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결정된 것도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를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일을 주도적으로 벌이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박 원장의 성격이다. 지금 그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부원장과 수간호사도 1975년 병원 개원 때부터 40년이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박 원장은 여든이 넘는 나이에 비하면 아직 정정하지만 예전처럼 왕성하게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체력이 부치는 것을 느낀다. 한번 시작하면 멈춤이 없던 그이지만 이제 적당한 후배가 나타나 자신의 활동을 이어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